

# 참사람 36.5°C

2021년 6월 |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 CONTENTS 목차

## 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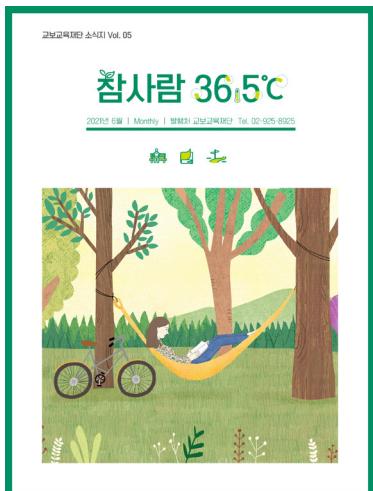
2021년 6월 4일 금요일  
Monthly

## 발행처

교보교육재단  
Tel. 02-925-8925

교보교육재단 공식 홈페이지  
[kbedu.or.kr](http://kbedu.or.kr)

참사람 36.5°C 온라인 소식지  
[chamsaram.org](http://chamsaram.org)



## Cover Story

어느덧 6월,  
올해의 절반을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바로 휴식일 것입니다.  
올바른 휴식은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줍니다.  
우리 지금, 쉼표 한 번 찍고  
가는 건 어떨까요



04

## 참사람을 말하다

삶의 도약을 위한 쉼표 찍기



06

## 내가 만난 참사람 \_ 에세이

코코아처럼 따뜻한 그 분

글 \_ 김성준



08

### 참사람 인터뷰

배움을 놓친 이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준 참사람,  
김동영 울산 시민학교 교장



12

###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청소년의 재충전을 돋는  
APP TOP4



16

### 품생품사

달기, 다가가기  
글/그림 \_ 정용욱 웹툰작가



10

### 책으로, 참사람으로

왠지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아  
수다를 떨고 싶은 이금이 작가님께!  
글 \_ 천안복자여자고등학교 김태희

‘허구의 삶’은 어떤 책?  
글 \_ 권일한



14

### 전문가 칼럼

교사의 인격적 모범  
글 \_ 강선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18~19

### 교보교육재단 소식

숲에서 나눔을 실천하다 :  
목공소에서 훌린 보석 같은 땀방울

무장애 나들이 지원 공모 :  
눈맞춤 117cm



## 쉼의 도약을 위한 쉼표 찍기



어느덧 6월, 2021년도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십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2학기 학습 목표를 세우며, 아이 스케줄 관리에 고심이신가요?  
끝없이 반복되는 학습 사이 잠깐의 '쉼표' 찍기가 망설여지시나요?  
불안을 느끼는 어른들에게, '쉼'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날 현대인들이 하루 동안 접하는 정보량은, 19세기 기준으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접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뇌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산책, 독서, 영화, 여행, 명상, 명 때리기 등. 특히 수업과 과제, 학원, 외부활동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요즘 청소년들에게 휴식은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청소년 4명 중 1명은 휴식과 자유시간이 전혀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한 기관에서 국내 아동 및 청소년 6,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권장기준에 부합하는 휴식(여가)시간을 갖는 청소년은 10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학생의 연간 학습시간은 중학생 2,097시간, 고등학생 2,757시간이라고 합니다. 국내성인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보다 더 많습니다.



어째서 청소년들은 성인 근로시간보다 더 길게 공부하고도 이토록 짧은 여가시간을 갖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입시를 위한 방과 후 학습 시간이 길기 때문일 겁니다. 성적 지상주의 속에서 아이들은 교과서 바깥에서 자신을 알아갈 시간을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휴식활동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지금처럼 휴식을 과소평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옥선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에 따르면 적절한 휴식과 함께 하는 여가 활동은 청소년의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개발된 능력은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높은 효과를 거둔다고 하네요. 즉, 충분한 휴식이 학업에 더 도움 된다는 말이지요.

또 다른 전문가도 같은 의견입니다. 미래학자이자 ‘휴식 컨설턴트’인 ‘알렉스 수정 김 방’은 장시간에 걸친 학업과 근로 활동이 오



히려 생산성과 창의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도요타, 퍼수트 마케팅, 우아한 형제들 등 많은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했음에도 높은 이윤과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이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청소년기에는 학업 능력 향상과 함께 적절한 휴식으로 마음이 잘 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의 습득에만 매몰돼 마음을 키우지 못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트들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엔론 회계부정, 모뉴엘 사기대출 등의 범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지요.

이제,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양과 통찰입니다. 때문에 가끔은 문제집을 내려놓고, 또 다른 세계를 살피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의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선생은 인재 양성시설인 계성원(啓性院)을 설립하며, 그 운영 방침을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놀게 한 이후에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뛸 수 있게 도와주는 비법이라는 것을 대산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의 도약을 위한 ‘쉼표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게 바로 기성세대의 책무 아닐까요.

자, 이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쉼표 한 걸음’을 떼 보시길 권합니다. 해야 할 목록은 잠시 내려놓고 아이와 눈맞춤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쉼에도 연습이 필요하니까요. KYOBO 교보교육재단

2021 참사람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 코코아처럼 따뜻한 그 분

글\_독자 김성준

내가 살던 작은 어촌에는 자그마한 보건소가 있었다. 보건소에는 중년의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보건소장’이라 불리며 혼자 일하고 계셨는데, 말이 보건소장이지 인근 마을들의 수백 명 주민과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혼자 도맡아 책임지고 계셨다.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아 보건소를 찾는 분이 끊이지 않았다. 머리가 아파도,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감기에 걸려도, 몸살을 앓아도, 잠이 안 와도, 심지어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보건소를 찾았다. 보건소장 선생님 특유의 너그럽고 화사한 웃음 덕에 보건소를 찾는 모든 이들은 마음이 편안해졌고, 그 때문에 보건소는 항상 문전성시였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불편하든 찡그린 표정으로 보건소를 찾은 이들은 보건소 문을 나설 때는 항상 웃음을 띠었다.

그때 나는 어린 초등학생이었고, 보건소장 선생님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는지 헤아릴 턱이 없었다. 의사 없이 간호사 혼자서 인근의 수백 명 주민과 학생들을 모조리 책임져야 하는 그 책임과 과로를 어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도 무릎이 까져도 보건소, 둘에 맞아 머리가 찢어져도 보건소, 감기에 걸려도 보건소, 이런 식으로 특하면 내 집처럼 보건소를 찾았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까진 무릎을 보일 때면 따뜻한 손길로 소독을 해주신 후 그 마음만큼이나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씩 주시곤 했다. 아직도 기억나는 그 달콤함은 코코아의 맛이 아니라 보건소장 선생님의 사랑과 봉사에서 느껴지는 향기임을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한다.

나와 친구들이 보건소장 선생님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 1991년, 태풍 글래디스가 오던 날이었다. 요즘 같으면 그런 날은 등교를 안 하도록 미리 안내를 받을 테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다. 당연히 학교에 갔었다. 하지만 하굣길에 큰 문제가 생겼다. 등하교를 하는 길은 바닷가 모래사장과 뒷산 사이에 난 작은 오솔길이었는데, 뒷산이 무너져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도로가 유실돼 버스도 끊겨, 전기도 끊겨, 전화선도 끊통이 돼, 나와 친구들을 지켜주던 우산까지 비바람에 날아가 우리 셋은 온몸이 폭풍우에 훌쩍 젖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막힌 데다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을 때라서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보건소로 가자. 보건소장님은 착하니까.” 내 제안으로 우리는 후닥닥 달려서 보건소로 향했다. 학교 정문에서 보건소가 있는 언덕 위까지 가는 길에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엎어져서 또 무릎을 까이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며 엉엉 울어버렸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다쳤던 바로 그 무릎이었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넘어질 때마다 꼭 같은 무릎이 까졌다.

나는 부상을 과장하기 위해 친구들의 부축까지 받으며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 모습을 본 보건소장님이 우산도 쓰지 않은 채 황급하게 우리 쪽으로 달려오셨다. 혹시 내가 태풍 속에서 크게 다친 건 아닌지 걱정하며. 하지만 내 무릎을 보시고는 귀를 잡아당기셨다. 그러고는 우리 셋의 물골을 확인하시더니 얼른 보건소 안으로 들어가라고 등을 미셨다. 역시 내 말처럼 보건소장님은 착하니까.

보건소장님은 따뜻한 코코아를 한 잔씩 주시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셨다. 어차피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전화선이 다시 연결될 때까지는 부모님께 데리려 오라고 연락도 못 드리니까.



그날 마신 코코아는 그 무엇보다 따뜻했고 달콤했다. 그리고 그날 보건소장님께서 차려주신 저녁밥은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내 기억 깊은 데서 아직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그날 태풍 속에서 그대로 집으로 향했다면 산사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전화선이 다시 연결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준 건 경찰도 아니고 소방관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보건소장 선생님이셨다.

그때 나는 참 어렸고, 어린이인 내게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보건소장 선생님의 마음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보니, 그래서 세상의 냉담함을 여러 번 경험하다보니 그런 어른이 계신 건 아주 드문 일이란 걸 알게 됐다.

그 시절, 그 인근 마을 사람들 모두, 심지어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 보건소장 선생님께서는 교장선생님 못지 않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존경을 표했다. 나는 그런 예우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보건소장 선생님에 대한 그 존경은 단순히 직업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진심어린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이제는 안다. 왜 다른 직업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데 유독 의료인에게는 ‘선생님’이라 부르는지 커 보니 이해가 된다.

벌써 30년이나 지나버렸고, 나는 어느덧 어른이 됐다. 보건소장 선생님도 이제 할머니가 되셨을 텐데 그 인자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없어 아쉽고 죄송스럽다. 내 어린 시절을 지켜주신 보건소장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배움을 놓친 이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준 참사람

### 김동영 울산 시민학교 교장

김동영 교장은 40여 년간 문해교육의 산 증인이자 평생교육 운동가로서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1970년대 부산문성재건학교, 80년대 울산서린학교, 90년대 울산시민학교, 2000년대 울산자유중·고등학교 등을 통하여 성인 비문해자, 다문화 이주가정, 위탁 청소년과 같은 취약 계층의 학습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돌보았습니다.

김동영 교장은 울산시와 울산 중구 문해교육 조례 제정의 기초를 제공하였고, 전국야학협의회장으로 야학 범인화에 앞장서는 등 거버넌스를 통한 문해교육 입법화와 조직화에도 힘썼습니다.

현재는 울산평생교육연합회장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를 만나 참사람의 가치를 들어보았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야학교장이 되기까지

문해교육과 평생을 함께 한 김동영 교장의 스토리는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잘 나가던 대기업 영업사원이었던 그는 부산으로 군복무를 하러갔다가 야학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봉사활동이나 해보자고 시작했지만 후에는 교장까지 맡게 되었다. 가난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 학교는 재정이나 인력 면에서 늘 열악했다.



그래도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까만 눈망울에 힘든 줄도 몰랐다. 이후 울산으로 옮겨 울산서린학교를 열었다. 어려움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다. 월세가 밀려 이사다니기만 세 번, 다행히 2003년부터는 지금의 터에 자리 잡고 있다. 300여 명의 저학력, 비문해(非文解) 학습자가 꿈을 피워가는 울산시민학교는 오늘도 열공 중이다.

### 위드 코로나 시대의 평생교육

코로나19는 평생교육 학습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교실에서 선생님과 함께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것에 익숙했던 이들이, 갑작스럽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학습으로 전환하는 일은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이었다. 김동영 교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학습 사회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성공적인 평생교육의 키포인트라고 했다. 그리고 이 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정보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팬데믹처럼 기술혁신이 두드러지는 사회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반복적인 접근과 적응 과정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비대면을 요구하는 새로운 질병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이지요. 지금과 그때를 위해서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정보 능력과 문해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비문해<sup>非文解</sup> 인구 311만명, 그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교육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 인구가 약 311만 명이라고 한다. 전체인구의 7%,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김동영 교장은 이러한 비문해 잠재적 학습자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

비하고 있다.

‘2025년 울산광역시 비문해 제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인만큼 민·관·학이 함께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학습자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학습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별 동사무소에 창구를 만들고 신청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울산광역시에서 시범적으로 선을 보여 좋은 사례로 정착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평생교육 현장에서 함께 한 48년, 가장 뜻 깊었던 순간

김동영 교장은 무려 48년 간 평생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며, 마흔 여덟 번의 졸업식과 검정고시를 거쳤다. 그에게 가장 기억이 남는 순간은 언제였을까. 가장 보람 깊었던 순간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제도와 지원을 확보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교육부와 기나 긴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전국 약학마다 5백만 원의 지원금 줄 수 있었지요. 2007년에는 문해교육 교과서를 정부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이후 전국적으로 보급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평생교육을 통한 학력인정제도를 신설하는 과정도 무척 뜻 깊었던 경험이었지요.” 평생교육의 불모지와 같았던 울산 지역에서 그 가치를 펼치는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김동영 교장은 꾸준히 기반을 다녀나갔고, 그의 노력에 감화된 이들이 하나 둘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꺾지 않으면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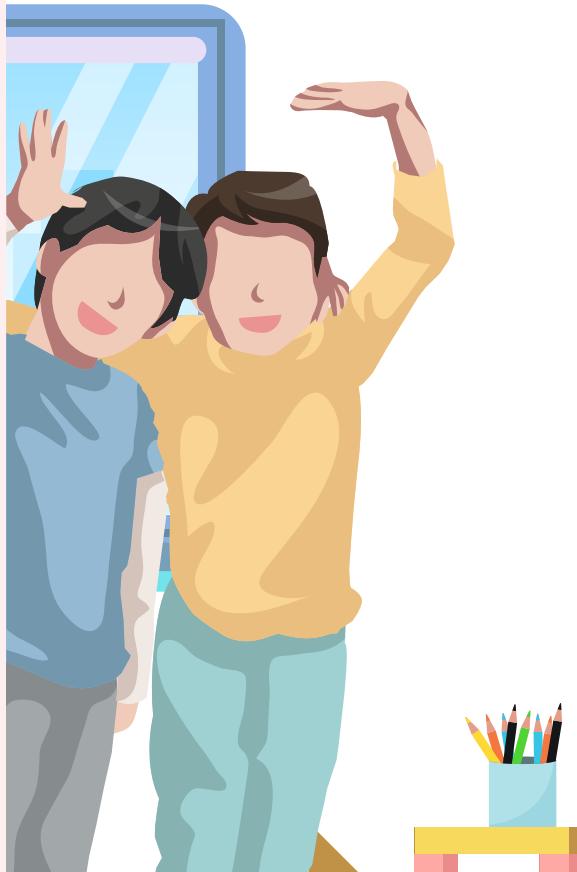
###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그의 포부

그는 교육 소외 계층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사교육에 의존하는 구조가 안타깝다고 전해왔다.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는 그는 지금 학습 계좌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꿈꾸고 있다. 학습계좌제란 다양한 학습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학습 계좌제가 현재는 국어, 영어, 수학을 제외한 과목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영수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아 학습자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검정고시학원 등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개선을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동영 교장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곧 인권이며, 국가의 의무라고 이야기한다. 48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비문해 학습자가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돋고, 평생교육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 서 온 그.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그의 만들어갈 ‘비문해 제로’ 대한민국이 궁금해진다.

# 왠지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아, 수다를 떨고 싶은 이금이 작가님께!

글 \_ 천안복자여자고등학교 김태희



안녕하세요 작가님, 전 천안에 사는 고등학생 김태희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전 작가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작가님의 책인 '밥티마을 큰돌이네  
집'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도 주인공의 이름이 참 재미있고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엔 정말 큰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대석이라는  
이름을 뜻을 풀어 표현하셨더라고요. 이 책의 주인공 이름도 '허구'인데  
참 독특하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작가님의 책 '허구의 삶'을 읽는 내내 주인공의 마음이 전부 이해가  
갔어요. 아무리 부족한 것 없이 뭐든 걸 다 해주시는 부유한 부모님이면  
뭐해요. 그건 허구의 옷이 아닌 걸요. 어른들은 아주 어렸을 적 기억은  
못 할 거라고, 가난한 가족과 치여 사는 것보다는 풍족한 삶이 허구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지레짐작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엔  
허구의 마음은 항상 친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가 있었던 거 같아요. 하지만  
한 번 버려진 그 상처가 너무 컸기에, 혹시라도 자신이 또 다시 버려질까  
가족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더 먼 곳으로  
떠나려 했던 게 아닐까요?

또 허구만큼이나 상만도 만만치 않게 안타까운 일들뿐이었어요. 악착같이  
가난을 버리는 상만이! 하지만 '꼼생이', '허구 똘마니'라는 별명들이  
상만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허구의 가족 울타리에 있으면  
열여덟 살 자신의 나이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허구의 집에 가면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힘든  
현실을 잊고 행복할 수 있었으니까요. 허구의 글, 허구의 문제집, 허구의  
옷... 그 어느 것 하나도 상만의 것이 아니라는 게 참 슬펐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전 이상하게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생각났어요. 삶의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만들어 주던 데미안은 꼭  
허구 같았고, 그런 데미안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싱클레어는 꼭 상만  
같았거든요. 특히 전쟁터에서 죽음을 앞두고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고 말했던 것처럼, 허구 역시 죽음을 앞두고

상만을 만나 이제는 상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 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허구와 상만은 어른이지만 아이에 머물러 있다 이제야 비로소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작가님과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저도 더 성장해 있었겠죠? 현재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고등학교 입학식도 못했고 낯선 환경에서 등교도 매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롭게 알게 된 친구들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만나다 보니 친구와의 우정을 쌓을 시간도 부족하고 혹시 친구의 얼굴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시간이 계속 되고 있지요. 하지만 저도 일단 허구와 상만이처럼 어려움을 열심히 버텨볼래요. 아니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맛서서

파도를 거슬러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 볼래요!

상만이랑 허구는 어른들의 이야기와 욕심 때문에 결정된 원치 않는 삶으로 힘들었지만,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해 가면서 후회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습니다. 또 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의 응원도 있고, 늘 청소년을 위해 따스한 마음으로 다독여주는 선생님의 이야기들이 큰 힘이 될 테니까요. 다음에는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저도 더 열심히 지낼게요! 항상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늘 허구가 아닌 진실의 삶을 살고픈 김태희 올림



권 일한

삼척 미로초 교사  
제20회 교보교육대상 참사람 육성 부문 수상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아이들 생각을 들으며 토론하는 즐거움을 누린다. 아이들에게 책읽는 즐거움을 주려고 책으로 아이를 만나며, 이 과정을 성실하게 기록해서 독서, 글쓰기, 독서토론에 대한 책을 여러권 썼다.

## ‘허구의 삶’은 어떤 책?

상처를 이겨내고  
진짜 자신을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상처는 우리 모습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이 영원히 달아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처로부터 탈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을 친구로 삼아 가리앉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를 잊으려고 일이나 게임에 몰두합니다. 그런 삶은 진짜 자신을 잊게 하고, 『허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상처받는 마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허구의 삶』은 상처받은 두 아이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상만’은 사람들이 다 아는 상처를 갖고 삽니다. 그걸 말하기 싫어 거짓으로 터를 닦고 거짓 뿌리를 내립니다. ‘허구(다른 주인공 이름)’는 아예 상처를 감추고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자신이 뿌리내려야 할 세상을 등지고 허구라는 이름답게 거짓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상처는 우리의 삶을 허구로 만듭니다. 상처는 아무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채 허구의 세계를 떠돌게 합니다. 거짓으로 다진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게 만듭니다.

코로나가 인간관계를 다시 보게 합니다. 늘 함께 지내던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거나, 만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평소와 달라진 일상을 겪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관계가 ‘허구’는 아닌지 살필 기회를 줍니다. 『허구의 삶』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인간관계가 진실한지 살피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의 재충전을 돋는 APP TOP4

일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휴.식.시.간.  
청소년 여러분은 혹시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텔레비전 시청? 온라인 게임 플레이?  
물론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는 활동들이지만,  
지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의미의  
진정한 재충전 활동과는 거리가 멍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  
더불어 나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리케이션 TOP4입니다.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도우미  
**코끼리**

'구글 플레이 올해를 빛낸 숨은 보석 앱', '애플 앱스토어 오늘의 앱' 등에 선정된 '코끼리'는 마음의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명상 앱이다. 명상은 집중력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휴식 방법 중 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손쉽게 명상 콘텐츠를 만나보자.



아침이 개운한  
숙면 유도 앱  
**수면소리**

수면소리는 유저의 수면을 제어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제작된 앱이다. 불면증 및 이명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다양한 수면 소리로 긴장을 완화와 숙면 유도를 돋입니다. 자연의 소리, 백색 소음, 잔잔한 음악 등을 만날 수 있으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음원을 믹스할 수도 있다.



의명의 대나무숲에  
감정을 털어놓자  
**어라운드**

속상한 마음을 혼자서 끌어안는 건 매우 부정적인 스트레스 활동. 어라운드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의명으로 털어놓는 SNS 서비스다. 유저들은 업데이트 된 고민에 대한 의견이나 해결방법 등을 역시 의명으로 답변 한다. 어라운드에서는 악플을 찾아보기 힘들며, 특유의 따뜻한 감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지하철 물품 보관함 등에 초콜릿같은 간식을 두고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달콤 창고' 이벤트 등을 꾸준히 진행한다.



동물 친구들이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  
**마이 오아시스**

'마이 오아시스'는 현대인의 불안 완화를 목표로 제작되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동식물들로 나만의 오아시스를 가꾸는 힐링 게임으로, 플레이 과정 중에 지나친 과업과 소모시간을 최소화하며 잠들기 전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설계되었다. 특히 용기와 위로를 주는 따스한 메시지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악들이 호평받고 있다.



# 교사의 인격적 모범

대학원 시절의 어느 날이다. 점심시간이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을 들렀다.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표정을 하고 계셨다. 그 이유를 여쭈어 보니, 교문 밖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중에 길거리 좌판 점에서 눈에 띄는 액자가 있어 두 개를 사 오셔서 책상 앞면 벽에 걸려고 하는 참이라는 것이다.



강 선 보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명예교수

그러시면서 그 액자들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셨다. 하나는 지휘자가 눈을 지긋이 감은 채 지휘봉을 들고 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발레리나가 허리를 숙여 발레 슈즈를 여미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별 것도 아닌 싸구려 액자들을 사 놓고 싱글벙글해 하시는 교수님을 의아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려자 교수님께서는 그 사진들이 주는 의미를 설명하셨다. 즉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지휘를 하기 직전에 최선을 다해 지휘를 하겠노라는 마음가짐과

발레리나가 무대에 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슈즈를 점검하는 마음가짐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면서, 바로 교사도 항상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즉 늘상 있는 강의를 교사는 태만한 자세로 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짙증을 내기도 하면서 시간 때 우기 식 강의를 하기도 하는데, 예의 지휘자나 발레리나처럼 강의에 들어가기 직전에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이번 시간 강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도 강의에 들어가시기 전마다 그 액자의 사진들을 보면서 태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불식하고 최선을 다한 강의를 하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책상 앞에 걸어 두고자 한다고 하셨다.

그 날 이후 내 머리 속에는 항상 교수님의 말씀이 맴돈다. 특히 강의준비가 덜 되었거나, ‘몸이 피곤하니 대충 강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때는 예외 없이 교수님의 말씀이 뇌리를 치곤 한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열과 성의는 최선의 교육 내용이자 방법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사론의 핵심인 것이다. 지금도 나는 학부시절에 수강한 교사론 과목의 내용은 하나도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러나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잡담 삼아 무심코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평생동안 뇌리에 남아있다. 바로 이것이 잠재적 학습이다. 이처럼 잠재적 학습의 교육적 효과는 지대하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적 교육은 교사가 의도적·계획적으로 준비해 와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묻어 나오는 무의도적 교육의 한 형태이다. 이처럼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인격적 모범은 가장 최선의 교육내용이자 교육방법인 셈이다. 그러기에 옛말에도 “참된 교사는 지식이나 기술보다도 먼저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師, 教人以道者之稱也)”라고 하였으며, “스승은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다(師者, 人之模範也)”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까지 다소 장황하게 경험담을 늘어놓은 것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의 인격적 모범과 그것에 토대한 교사와 학생간의 인격적『만남』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전달매체가 곧 전달내용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고 하였다. 전달매체 그 자체가 전달내용이 된다면,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교사 그 자체 또한 교육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활동에 있어서 교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조심스러워야 하고 모범(example)이 되어야 함은 교사 그 자체가 곧 교육내용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은 교사 혼자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생 간에 참다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는 그만큼 반감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관계가 자주 교육의 문제로 부각되는 이유는 학생의 인간성(사람됨)은 인간적인 교사의 인간적인 교육방법에 의해 계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내용이 아무리 인간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인간성이 결여된 교사에 의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진다면, 학생들은 결국 비인간적인 ‘어떤 것’을 학습하게 된다. 결국 인간화 교육은 인간적인 교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교사가 학생을 수단시하지 않고 인격적 주체로 파악하는 상호인격적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이처럼 교육이란 근본적으로는 살아있는 인간이 또 하나의 자유로운 인간을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이란 그 가장 깊은 본질적 차원에 있어서는 역시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삶의 대결이다. 그러기에 교사와 학생간의 참된 관계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선행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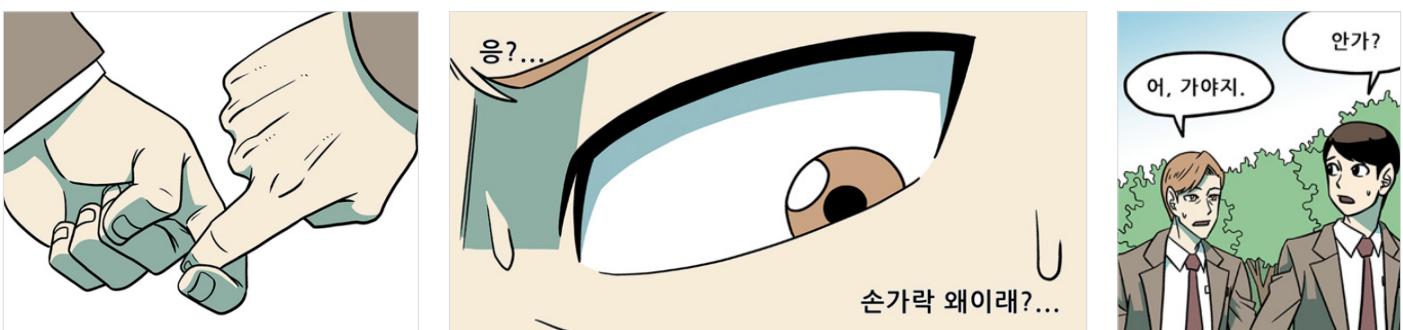
사실 이 시대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따라야 할 인격적 모범상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교직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닿기, 다가가기

- 정용욱 -

## 품생품사 웹툰 제3화

때때로 익숙함은 대상의 본질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쾌활함 뒤의 그늘, 평범함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조차도 몰랐던 내 안의 잠재력과 재능을 누군가 알아봐주고 발굴해주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혹은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결핍과 상처를 누군가 발견해주었을 때, 그것을 나눔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치유 받습니다.







# 숲에서 나눔을 실천하다: **목공소에서 흘린 보석 같은 땀방울**

온 세상이 봄기운으로 가득했던 지난 5월, 교보교육재단은 **2021 그린다솜이 가족자원봉사 ‘나눔을 실천하는 숲 속 목공소’**를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맹산환경생태학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웃을 위한 나눔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날을 위해 재단은 소수의 인원을 초청, 최대한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가족 3팀과 함께 한 프로그램의 첫 시작은 바로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의 아름다운 숲에서 함께하는 숲해설 체험!

전문 숲해설가의 가이드에 따라 학습원에 자리한 아름다운 풀과 꽃, 나무들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날 가족들은 단옷날 역 감기에 쓰였다는 ‘창포’의 향기를 직접 느껴보고, 마트에서만 봤던 블루베리 나무를 실제 만나보는 등 오감으로 숲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공 봉사 시간. 맹산환경생태학습원 한편에 마련된 야외 목공소에서, 가족들은 전문강사님의 설명에 따라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간벌을 통해 얻은 소재로, 다시 일상의 제품을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은 아주 중요한 탄소 중립 활동입니다.

참여 가족들은 친환경 소재로 가구를 만드는 목공 활동을 통해 숲이 지구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 날 제작된 책걸상은 공부 공간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 또한 협탁이 필요한 와상 장애인 등의 가정으로 각각 전달될 예정입니다.

유난히 햇살이 따사로웠던 5월, 그렇게 가족들은 숲 속에서 이웃과 지구를 위한 나눔을 몸소 체득하고 실천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마에 송골송골 맷힌 땀방울, 햇빛에 반짝거리는 그 땀방울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참사람의 가치를 나누는 그린다솜이 가족자원봉사는 2021년 연말까지 쭉 계속될 예정입니다.



## 무장애 나들이 지원 공모 눈맞춤 117cm

사연과 함께 무장애 나들이 계획을 보내주세요!  
선정된 기관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드립니다!

휠체어 이용인의 평균 눈높이 약 117cm.  
117cm에서 보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보다 조금 더 깨다롭고,  
조금 더 불편합니다.  
교보교육재단은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분들의  
나들이를 지원하고,  
이렇게 발굴된 여행코스를 공유하여 보행약자 등  
해당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배려는 상대와 눈높이를 맞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한 나들이를 위한 디딤돌,  
<눈맞춤 117cm>로 함께 만들어주세요.

### 사업명

2021 교보교육재단 무장애 나들이 지원 사업 : 눈맞춤 117cm

### 사업대상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심사를 통해 20개 기관 선발 예정)

### 지원금

기관 당 100만원

### 모집기간

2021년 6월 13일(일) 자정까지

### 신청방법

양식 다운로드 → 기관소개 및 사연 작성  
→ 접수 페이지 통해 지원

### 발표

2021년 6월 18일(금) 이내 홈페이지 및 개별연락을 통해 안내

자세히 알아보기



# 참사람 36.5°C

교보교육재단이 생각하는 참사람은 정직, 성실한 성품을 갖추고  
끊임없는 자기성장을 추구하며 자리이타 실천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성숙한 인격체입니다